

大學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任 鍾 淳
延大圖書館 司書課長

I. 序 言

앞으로 몇일만 지나면 甲寅年을 보내고 乙卯年을 맞이하게 된다. 歲月은 流水와 같다 하였으되 벌써 甲寅年도 저저러 가고 있다. 이제 送舊迎新함에 지난 過去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앞날의 向上을 摸索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溫故知新을 거울삼아 지난 과거의 業績을 돌이켜 보고 못다한 일, 시정할 사항 등을 回顧整理하여 새로운 삶의 基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지나간 甲寅年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界는 어떻게 지내왔나 알아보자.

大學圖書館은 國家와 人類社會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指導的인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大學에 있어서 教育 및 研究活動의 母體가 되는 學術資料의 提供 및 資料利用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 지도적 役割을 擔當하는 組織體란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렇게 大學圖書館에 맡겨진 責務는 크고 무거운 것이다. 이들 責務를 完遂하기 위해 大學圖書館은 施設面이나 資料面이나 그리고 人的面에 있어 항상 完備된 施設, 充實한 資料, 有能한 人的組織을 期해야 하며, 이로써 大學圖書館이 맡은 바 機能을 發揮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大學教育이 注入式教育에서 벗어나 自律的開發教育으로 轉換點에 있으며 學點制도 160學點에서 140學點으로의 引下와 아울러 副專攻制를 擇하여 多角面的 知識 涵養과 學究的의 前進으로 日前보다 더 公부하는 大學으로의 學風이 造成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해야 할 大學圖書館이야 말로 그 맡은바 重要하고 또 完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成年이 되었다는 우리의 大學圖書館 그간의 活動 不進도 있었고 또 榮養의 失調面도 있었으나 차차 크게 자라면서 學校社會의 重要一員으로서 認識도 달라져 幾個의 大學當局은 大學圖書館 育成에 注力하는 곳도 생겨 나기 시작한 것은 大學圖書館을 위해 야니 그 大學의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반가운 일인

것이다.

이제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 1년간, 그간에 大學圖書館은 내일을 위해 또 한 해를 자랐다. 얼마만큼 자랐으며 成長하는 동안 어떠한 進步와 反面 어떠한 改善點이 發見되었는가 例舉하면 다음과 같다.

II. 特記 事項

A. 全國 國立大學 圖書館長 및 司書長 會議

이 會議는 國立 大學圖書館의 相互親睦과 同一 館種의 發展策을 圖謀하는 會議로 每年 모임을 가지고 있다. 今年에는 5月3日에 第18次會議가 江原大學에서 열렸다.

會議에서는 ① 圖書館職制確立問題 ② 圖書費增額問題, ③ 學術誌 缺本 處理에 따른 措置問題, ④ 각 대학 자료 교환 문제 등이 討議되었고, 國庫 圖書費引上 등을 關係當局에 建議키로 하였다 한다.

B. 第1次 私立 大學圖書協議會 定期總會 開催

1972년에 創立總會를 거쳐 발족한 私立 大學圖書館協議會의 第1次 定期總會가 지난 6月 13日 幹事長校인 高麗大學校의 教授會館에서 開催되었다.

會議는 經過報告와 任期 1年인 任員改選을 하여 幹事長校에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 幹事校로 慶熙大學校 中央圖書館과 檀國大學校 中央圖書館이 選出되었다.

이 會議에서 討議된 案件은 ① 會費納付 ② 圖書館職員의 職名 統一과 司書職手當 支給問題, ③ 圖書館豫算問題 ④ 繼續受入 外國雜誌 綜合目錄 등이 었다. 이 중 會費는 年 壹萬원으로 定했으며 그외의 案件은 小委員會에서 處理케 하였으며 이 小委員會構成은 幹事校에 一任하였다.

C. 「한국의학도서관」誌 創刊

每年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의 發刊 등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韓國 醫學圖書館 協議會는 지난 8月 31日 協會 創立 7周年을 맞이하여 機關紙로 「한국의학도서관」을 創刊 刊行하였다.

D. 圖書館 建物の 新築 및 計劃

가) 延世大學校는 90周年 記念事業의 하나로 規模가

크고 現代式 設備을 갖춘 새로운 圖書館의 建立을 計劃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여러번의 會議도 가졌으며 位置問題, 豫算問題, 利用奉仕方途問題 등 多角度의 檢討가 慎重하게 進行되고 있다.

나) 高麗大學校는 75年度에 創立 70周年을 맞이하는 記念事業의 하나로 지난 6月 5日 新築 圖書館의 起工式을 가졌고 現在 建物의 骨造工事が 進行中이다. 이는 76年 5月 5日에 開館豫定을 세우고 總工事費 9億원을 策定 進行中이다. 地下 1層, 地上 4層의 建物로서 現在 計劃은 2百萬 藏書에 1,800席을 收容할 態勢이며 新築 圖書館과 함께 舊 建物도 圖書館으로 繼續 使用할 것이라 한다.

다) 梨花女子大學校 中央圖書館은 現在 書庫擴張이 進行中이다. 每年增加되는 資料의 收容을 위해 現在 4層으로 되어 있는 書庫로는 狹少하여 새로 105坪이 되는 3層의 書庫를 增築하는 것이며 이는 現在 1層인 事務室 上部부터 3層을 增築하여 現在의 書庫와 連結시키는 것이다.

라)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은 冠岳區에 세운 국립서울대학교종합계획에 의하여 그동안 東崇洞 大學本部內에 位置하였던 附屬圖書館과 各 單科大學별로 設置되어 있던 圖書館中 文理大, 商大, 法大, 師大와 教養課程의 圖書館을 統合하여 中央圖書館으로 運營키 위하여 관악구 캠퍼스에 9,500坪에 달하는 圖書館 建物의 完成을 보았고 현재 內部工事に 들어갔다. 建物의 層數는 前面 6層, 後面 4層으로 前面의 1·2層에는 奎章閣圖書를 所藏 利用시키며 3層에서 6層에는 各種 閱覽室과 事務室 및 書庫를 配置할 계획이다.

마) 西江大學校는 獨立建物로 1,500坪의 圖書館을 新築落成하여 開館을 보았다. 이는 1973年 3月에 工事費 2億 3千餘萬원을 投資하여 1973年 12月에 竣工을 보고 1974年 2月 22日에 開館한 것이다. 35萬책의 所藏場所와 630餘席의 座席을 마련했고, 自習室, 一般閱覽室, 博物館, 教授 研究室, 展示室, 稀貴圖書室 등을 갖추고 完全 開架式制度를 擇하였다.

Ⅲ. 大學圖書館의 現況과 提言

A. 大學圖書館 館數

圖書館協會 統計에 依하면 現在 大學圖書館數는 대학 95, 初大(이후 初·專이라 함) 66個館으로 合計 161個館이다. 이는 1974年度 文敎統計年報에 나타난 初·專 109個校에 比하면 아직도 43個館의 不足數를 나타내고 있다. 大學의 數는 72個校인데 現在 大學圖書館의 數는 95個館으로 이는 綜合大學校에서 中央圖書館 및 大學校內의 各 單科大學圖書館과 分館까지도 統計한 것

같다.

B. 奉仕者數와 奉仕對象者數

大學圖書館의 專門職은 大學에 388명, 初·專에 41명으로 合計 429명이고, 非專門職은 大學에 694명, 初·專에 131명으로 合計 825명이다. 專門職과 非專門職의 比率은 거의 1對 2이다.

奉仕對象者數는 大學에 421,404명, 初·專에 53,523명으로 合計 484,927명이다.

奉仕者數와 奉仕對象者數를 對比하면 大學은 專門職과 非專門職을 合한 경우 奉仕者 1人當 388명, 初·專은 311명이고, 專門職만을 對象으로 할 때 1人當 奉仕對象者數는 大學의 경우 1,086명, 初·專은 1,305명이란 超過重한 狀態로 分析된다. 이를 다시 大學과 初·專을 合해 檢討하면 專門職 1人當 1,130명이란 數量이 나오며 이는 昨年의 1人當 奉仕對象者數 891명에 比하면 293명의 增加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現況은 大學圖書館 全體로 볼 때 深奧한 學問研究와 人格陶冶란 大學教育의 目的을 完遂시키는데 不可缺한 大學圖書館의 業務는 過重해 가고 있는 形便이다. 더구나 在學生만 아니라 大學校의 敎職員까지를 奉仕對象者로 하여야 할 司書職의 數로는 增員이 不可避한 것이다. 이러한 增員問題와 아울러 奉仕者에 對한 待遇面에 새로운 措置를 講究해야 한다.

1) 司書 手當支給 問題

司書職의 職務內容이 一般職과 달리 위생상, 學술상 및 과중한 業務에 奉職하고 있는 單차 勤務手當을 勘案하여 司書職手當의 支給을 考慮하여야 한다. 現在 國公立大學과 몇개 大學에서는 이를 實施하고 있으나 아직도 大部分의 大學圖書館에서는 이의 執行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 각 大學圖書館 自體로서는 이의 推進을 努力해 왔으나 아직 不進狀態에 있다.

2) 敎授職待遇 問題

美國은 專門職司書에 대해 敎授職과 同一한 制度를 採擇한 大學도 많으며 특히 Felix E. Hirsch가 議長으로 있던 大學 및 研究圖書館協會 基準委員會(ACRL Commitee on Standards)에서 「專門職司書는 敎授의 地位를 갖어야 하며 敎授陣이 享有하는 條件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다. 專門職 司書는 그 學究的 研磨에 있어 講壇에서 學生들에게 知識을 傳授하고 研究方法를 指導하는 敎授職과 同一한 學究的 奉仕를 圖書館資料 利用面에서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즉 現在 大學에서 專任敎授 位置에서 學生들과의 相談과 指導를 擔當하고 있는 Counseller도 同一한 地位를 享有하고 있다. 이런 見地에서 專門職 司書의 待遇도 敎授職의 地位와 同一해야 한다. 그러나 다만 大學圖書館에서 勤務하는 司書란 條件만으로는 이런 待遇를 바랄수

도 없다. 敎授職과 같은 學究의 經歷의 所有者라 할것이다. 이는 大學圖書館 自體가 繼續的 資料奉仕에 대한 研究業績을 쌓아 個人的 學的 向上을 위해 精進하고 있는 態勢를 維持하기 위한 것이다.

C. 藏書數와 資料費豫算

藏書數面에서 觀察하던 95回 大學圖書館의 總藏書數는 4,603,444책으로 이를 奉仕對象者 421,404명과 對比하면 大學生 1人當 11책으로서 아주 적은 數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數字의 基準量만을 規定한 大學設置基準令에 明示되어 있는 學生 1人當 30책에 아주 未達하는 狀況이다.

年間 增加 冊數는 大學 307,090책과 初·專 177,377책으로 合計 484,467책의 增加를 보았다. 이중 4割을 기준으로 간주 한다면 購入費로 增加된 冊數는 290,681책이란 계산이 나온다.

資料 購入費 豫算은 大學 436,549,867원과 初·專 50,803,090원으로 合計 487,352,957원이다. 이 資料費로서 購入으로 增加할 冊數를 나누어 보면 1책당 약 1,700원이 나온다. 資料購入費 中에는 特殊資料購入費도 包含된 것이므로 實質的으로 1책당 購入價格은 平均 1,700원 以下가 되는 것이다.

大學圖書館 藏書의 基準를 學生 1人當 몇책이란 數의 으로 局限시킨 것은 結果的으로 限定된 豫算下에서 購入을 執行하게 됨으로 자칫 數量에만 치우치면 質의 低下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에 大學敎育에서 必要한 資料의 所藏에는 첫째로 充足한 資料費 豫算의 策定이 先行되어야 한다. 資料費 豫算의 充足없이 어떻게 大學圖書館에 備置할 만한 質의 面을 갖춘 資料數를 大學設置基準令 以上으로 備置所藏할 수 있을가, 充足한 豫算이 資料蒐集의 基本條件이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수차 會議에서 討論된바 있으며 今年에도 제18차 全國 國立大學圖書館 및 司書長會議에서와 第1次 私立大學 圖書館 協議會 定期總會에서도 案件으로 取扱되어 論議한 바도 있다.

D. 建物과 座席數

大學圖書館의 總建坪數는 124,728.88坪, 初·專은 12,921.26坪으로 合計 137,650.14坪이다. 座席數는 大學이 58,029席, 初·專이 6,816席으로 合計 64,845席이다. 이를 奉仕對象數 484,927명에 對比하면 座席數는 약 13%에 該當한다.

앞의 II에서 前述한바와 같이 今年 들어서 대학도서관에서 건물의 新築도 보았고 擴張건축중이거나 또 改築계획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 반가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중 圖書館 新築인 경우 獨立建物을 찾아 했다는 이유보다 圖書館의 奉仕體制가 더욱 完成化해 가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圖書館이 獨立建物이 아닌 既存建

物內에 있을때 있었던 여러 不合理했던 點이 理論上, 設計上 圖書館 機能을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있는 獨立建物의 新築開館은 그 大學敎育에 하나의 轉換點을 가져올 契機가 될 것이다. 이는 西江大學의 경우이고 현재 건물 건축을 완료하고 내부 공사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現 圖書館 建物外로 圖書館 擴張을 위해 또 建築中인 高麗大學校, 書庫를 擴張中인 梨花女子大學校 및 앞날의 보다더 完全한 圖書館 經營을 위해 現 建物 代身 別途로 新築을 計劃發表한 延世大學校 등등 모두 大學圖書館 發展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單科大學의 綜合計劃으로 새로운 圖書館을 建築한 서울대학교 中央 圖書館은 例外로 하고 其외의 3個 大學 圖書館은 各已 獨立建物인 圖書館을 運用하고 있으나 大學의 敎育의 擴充으로 增加한 奉仕對象者에 대한 圖書館의 利用上의 不便을 除去해 주고 또 大學敎育에 必須 不可缺한 資料의 每年 增加 蓄積으로 인한 資料所藏處의 狹少等 理由로 書庫의 擴張 또는 圖書館 建物의 擴張 新築에 이른 것이다. 이는 前言한 바와 같이 增加하는 大學構成員의 學究의 慾望을 充足시켜줄 圖書館 奉仕體制의 多樣化와 함께 그 活動에 必要한 施設 및 場所 등의 需要原因에서 起因된 것이다.

이러한 大學圖書館 建物의 坪數的인 量的 擴張에 있어 考慮할 것은 學究의 雰圍氣 造成을 위해 建物에 配定된 各室의 問題이다. 즉 資料利用에 있어서 完全開架式이나, 開架式이나, 半開架式이나, 또는 어느 局限된 資料만은 開架式 利用을 하는가 하는 問題 등이다. 이미 過去부터 開架式 方法으로 대개 參考圖書 閱覽室 또는 定期刊行物 閱覽室 등을 마련하여 利用에 提供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資料外로 一般單行本 및 其他 資料의 主題別 利用을 돕고자 어떠한 方式을 取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해서 建物 建築時 內部 構造의 配置를 생각하여야 한다.

E. 利用 狀況

統計上으로 나타난 바에 의하면 年間 利用者數 및 利用 冊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학	초·전	합 계
이용자 수		4,942,655	466,616	5,409,271
이용책 수	관 내	3,808,882	381,444	4,190,326
	관 외	425,127	43,591	468,718

이를 참고로 하여 대학 421,404명, 초·전 53,523명의 奉仕對象者數와 對比하면 ① 年間 利用者數에 있어서는 大學生 1명이 平均 10회, 初·專은 9회 圖書館을 利用했고 ② 年間 利用 冊數에 있어서 館內貸出의 경우 大學은 1人 年間 9冊, 初·專은 7冊, 館外貸出은

大學生 1人 年間 1册, 初·專은 0.8册을 利用했다는 結果를 알 수 있다. (附言하지만 貸出業務는 大개 閉架式的 경우 적은 貸出冊數와 反比例로 貸出現況을 밝히기 위해 業務는 더 複雜해 진다)

이 數字를 볼 때 너무나 한심스러운 도서관 이용 상황이다. 그럼 왜 이렇게 도서관 이용이나 도서 대출 이용이 低調한가 大學圖書館 關係人士들은 이러한 것의 改善에 努力하여야 한다. 圖書館의 施設이 不備하여 利用率이 적은지, 利用할 만한 資料가 없어서 圖書貸出量이 적은지, 또는 大學教育의 敎課課程과 圖書館資料의 利用에 있어 聯關方法이 順調롭지 못하여 所藏資料도 잘 利用시키지 못해 이런 結果를 가져 왔는지 檢討는 正할 問題이다. 施設이 不備하다면 그를 改善하여 學生들에게 공부하는 雰圍氣를 圖書館 自體는 提供하고, 利用할 資料가 不足하다면 學校當局에 要望하여 資料 購入費의 增額策定을 圖謀하고, 敎授陣과의 協調 不充分으로 利用率이 下廻한다면 이의 是正策을 마련하여 奉仕對象자들이 圖書館을 利用하지 않으면 안될 곳으로 認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F. 定期刊行物 購入豫算

一般的으로 圖書館에 所藏되는 資料로는 圖書資料만을 聯想하기 쉬우나 圖書館資料란 圖書資料와 特殊資料를 包含한 것이다. 이 特殊資料中 現在 가장 利用도가 높은 것은 定期刊行物인 것이다. 이 定期刊行物에 대해 各 大學圖書館은 많은 豫算을 執行하고 있다. 그 하나의 例로 서울市內 大學圖書館中 定期刊行物 購入費가 總資料 購入量의 30% 以上인 高大, 東大, 西江大, 서울大, 成大, 延大, 梨大, 中大, 카톨릭醫大, 弘大 등의 경우를 보면 이들 10個 大學圖書館의 總購入費 約 2億 7千萬원의 41%를 占하는 約 1億 8百萬원이 執行되고 있는 現況이다. 이는 定期刊行物 資料가 學術的 情報를 迅速히 傳達하는데 있어 重點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長點이 있는 反面 高價인 外國定期刊行物과 좀 利用도가 낮더라도 正當한 購入中斷의 理由가 없는限 繼續的으로 豫算을 執行해야 한다는 豫算上의 難點이 있다. 資料는 必要한데 豫算上 問題도 考慮해야겠고 거기다 일단 購入始作을 하면 繼續購入을 해야 하겠고 또 이로 因해 限定된 購入費로서 其外의 資料購入에 影響을 가져오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다. 따라 一部 大學圖書館에서는 定期刊行物과 圖書資料와의 平衡도 維持하기 위하여 定期刊行物 購入費 減少方向을 위한 再調整 或은 圖書資料量의 增額方向을 模索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 狀況이다.

資料購入費는 必要에 따른 資料選擇方法을 通하여 執行되는 것이다. 定期刊行物 資料外의 다른 圖書資料 등의 選擇蒐集에도 慎重을 期해야 하겠지만 특히 定期刊

行物은 決定的 理由 없는限 購入中斷을 할 수 없는 繼續刊行物이란 點을 考慮하여 大學의 敎科目과의 聯關性, 一般性과 特殊性을 勘案하여 選擇 決定해야 할 것이다.

G. 定期刊行物 索引作成

迅速한 學術情報를 傳達하는 媒介體로서의 定期刊行物은 重要的 것이다. 그러나 이의 編輯形式은 單行本의 경우와는 달리 異하다. 刊行種類도 半月刊, 月刊, 季刊, 隔月間, 季刊, 年刊 등 多樣하지만 한편의 定期刊行物內에 여러 執筆者에 의해 一般綜合誌인 경우 여러 分野의 主題를 다루었고 또 特定 主題誌의 경우 그 主題의 內容細分을 다루고 있다. 따라 利用者로서는 自己가 檢索 利用코자 하는 主題나 執筆者가 어느 定期刊行物 몇號에 收錄되어 있다 發見하기 매우 어렵고 그 資料를 찾는 手段으로 하나 하나 뜯추어 보아야 하는 時間 經濟的 浪費를 해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檢索의 不便한 方法을 是正하고 直時 利用者가 要求하고 있는 主題나 執筆者 또는 刊行物內의 記事名까지를 찾아 보게 해 주는 方便으로 몇개의 大學圖書館은 自館 所藏 定期刊行物의 索引作業을 始作하였고 現在 進行中이다. 이런 作業의 方法으로 하나는 檢索에 必要한 各種 카드를 作成하여 每年分을 累加 排列 利用시키는 곳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作成되어 利用되었던 카드를 年度別로 拔出하여 印刷過程을 거쳐 書目目錄을 作成 永久히 使用케 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書誌作業은 大學圖書館 奉仕活動의 機能을 發揮함은 勿論, 奉仕對象者에게 學究의 面에 便益을 주며 한편 大學圖書館이 學校社會의 面에서 資料의 提供處로 再認識을 해주는 契機가 되는 重要的 業績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도 不拘하고 現在 大局的 見地에서 이에 대한 問題點이 擡頭되어 있다.

첫째로 作成된 카드를 累加排列할 때 每年 增加되는 多量의 카드를 어떻게 保存 利用시킬 것인가, 둘째로 몇개 大學圖書館마다 이런 作業의 結果를 나타내어 豫算面과 人的 面에 있어서 國家的 見地에서 浪費됨이 없지 않은가, 셋째로 國家的 書誌作業으로 볼 때 현재 國會圖書館에서 이런 종류가 刊行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 列舉한 세가지 問題를 놓고 볼때 이에 대한 再考의 餘地가 있는 것이다. 國會圖書館에서도 發刊되는 此種의 索引이 있는데도 몇개의 大學圖書館에서 따로 이런 書誌作業을 벌인 理由로는 첫째 所屬 大學圖書館 所藏資料만을 對象으로 하자는 것과, 둘째 國會圖書館의 索引誌가 作業上 여러 隘路로 그 發行이 時期的으로 좀 늦어진다 는 것과, 셋째로 編輯方式의 차이 때문인 것 같다.

이상의 이런 저런 觀點 差異와 함께 所屬 大學의 構

成員에 어떤 方法으로 資料를 迅速히 利用시켜 줄까하는 圖書館 專門職的 念願에서 몇개의 大學圖書館이 이런 事業을 展開 進行한 것에 대해서 自畫自識이나 我田引水格은 아니지만 그 奉仕方法에 대해서는 非難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Ⅲ의 B항에서 論한 바와 같이 限定된 人員으로 增加하는 奉仕對象者와 도서관 資料를 相對로 하는 大學圖書館이 奉仕에 대한 慾望만 앞섰지 그의 뒤를 받힐 全般的 措置가 不足하여 索引카드의 배열이나 書冊目錄의 作成이 時期的으로 鈍化를 가져오고 있다. 더구나 前言한 바와 같이 大局의 見地에서 作業의 統合이 必要視되는 것이다.

이런 것의 해결책으로 ① 이미 國家的 書誌事業을 進行中인 國會圖書館이 大學圖書館의 奉仕立場을 勘案하여 編輯體制의 調節 및 發行時點의 迅速을 研究하는 方法과 ② 大學圖書館의 協議體인 全國 國立大學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와 私立大學圖書館協議會가 合同作業으로 어떤 常設體를 두어 계속하는 方法과 ③ 定期刊行物 刊行體를 總網羅한 特定 協會가 이의 事業을 위해 1次로 定期刊行物이 出刊時 直時 索引카드를 作成 同時 販賣하고, 2次로 書冊으로 된 索引誌를 定期的으로 市販하는 方法 등을 提言한다.

要는 어떤 方法을 採擇하든지 定期刊行物索引의 生命이 正確, 緻密과 함께 가장 迅速함이 緊要함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H. 大學刊行資料 相互交換

各 大學은 必要에 따라 數 많은 學術的 研究機關(所)을 設置하고 各己 專攻分野에 따라 學術研究의 業績을 蓄積하고 있다. 그리고 이 學術研究의 結果를 印刷化로 發行하고 있다.

이 貴重한 資料는 거의 無料 配付이며 이로써 市中에서 購入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들 資料를 大學圖書館에 備置하기 위하여 多角度的 蒐集活動을 展開하고 있지만 如意치 않는 實情이다. 몇개 大學圖書館은 그 大學의 刊行物의 配付를 도맡아 하는 관계로 각 大學圖書館에 맡고루 送付하는 곳도 있으나 大部分의 大學

內 刊行物은 그 刊行所에서 直接 各 大學內 研究所 相對로 配付하여 지고 있다. 이로 인해 實際的으로 그 資料가 圖書館에서 많은 利用者에게 奉仕되지 못하고 各 研究所에 備置되어 局限 利用되고 있는 形便이다. 이런 貴重한 研究資料는 各 研究所에 備置하기 보담 大學圖書館 相對 交換의 方式을 거쳐 폭 넓은 利用을 위해 大學圖書館이 配付業務를 擔當하는 것이 正常的인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大學 當局은 政策을 세워 그 大學內의 모든 刊行物에 대해 그 大學圖書館에서 資料交換에 必要한 部數를 納本制 비슷한 制度로 供給해 주든지, 또는 過多한 部數의 發刊이 研究所의 豫算上 無理가 있다면 大學圖書館에서 交換에 必要한 部數의 發刊費를 自擔할 豫算을 세워 이를 執行함으로써 效果있는 資料交換의 成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므로써 國內大學의 刊行物만이 아니라 選定한 國外大學의 刊行物도 蒐集케 되어 資料 奉仕機關으로서 大學圖書館이 많은 바 機能을 完遂하게 되는 것이다.

IV. 結 言

지나간 過去의 回顧와 이에 따른 提言을 列舉하였다. 大學圖書館이 大學教育에 臨하는 態度는 어디까지나 그가 所藏하는 資料의 完全 消化的 利用을 奉仕對象者에 하기끔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大學圖書館의 資料構成과 資料所藏에 必要한 豫算的인 면, 그리고 適切한 運用方法을 隨行하여 人的構成面, 資料 利用을 위한 施設面과 함께 建物構造의 多樣化 등등에 對備할 考慮 및 全般的인 大學圖書館 經營에 대한 細密한 檢討를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回顧와 提言은 每年 되풀이되는 법이 있겠으나 大學圖書館은 自體에서 解決할 것은 解決하고 大學當局에 要請할 것은 要請하여 一步 一步 大學圖書館의 기틀을 쌓아 올려 가야할 것이다.

● 會費와 出版物 代金を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 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 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 분께서 보내 주시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は 協會의 運營은 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物代金 및 75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